

cover story

따뜻한 꿈을 품다 성숙하게 철든 수원

우리가 세월을 비껴갈 수는 없지만 받아들일 수는 있다.
누구나 '꽃다운 시절'이 있고, 지금도 마음은 '청춘'이다.
모든 순간이 '꽃'다울 수 있도록 더 진한 젊음의 향기를 품는다.

표지 일러스트 임다은



서늘한 바람 따라 하늘거리는 갈대소리
청명한 하늘에 이리저리 날리는 고운 단풍잎
당신과 함께 걸었던 추억의 길이 붉게 물들어간다.



CONTENTS

목차

2018 — Autumn — VOL.24

S

Special Features

따뜻한 꿈을 품다, 성숙하게 철든 수원

06

인트로

효의 계승,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08

칼럼

참다운 효를 위한 또 하나의 수도(首都) 수원 화성

14

공간탐색

이산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진 수원화성을 걷다

22

인터뷰

백성을 사랑하고 효심 가득했던 그 정신을 이어가며
Urban vacation hotter than the hot weather_Suwon Water Play Spot

A

Art&Space

32

공방탐방

깎고, 두드리고, 다듬으며 완성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

38

공연프리뷰

아트리움은 당신과 함께 (Atrium with You)

S

Sightseeing

46

골목산책

문뜩문뜩 떠오르며 지친 삶을 위로하는 그리움으로 남은 기억들
추억을 간직한 가게

54

수원유람 1

추억을 꺼내어 감성으로 채운 다시 찾은 골목
수원 추억의 거리 명소

62

수원유람 2

어린 나의 일상이 즐거움으로 물든 추억의 놀이 소환하기

P

People

64

예술인열전

악보 세상을 이루는 모든 '보잘 것 없는 것들'을 위하여
홍나겸 작가

70

안녕하세요

축제, 일상 속 환타지를 만들다
화성사업부 수원화성문화제팀

S

Story

74

사업소개

제55회 수원화성문화제 '인인화락, 여민동락의 길'

76

밥상머리 이야기

식사 예절을 지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다

80

세상보기

철든 지금도 때때로 철없던 시절이 그리운 순간

84

문화읽기

시, 그리고 인간 혹은 인간성 상실의 시대

S

SWCF

88

재단사람들

90

재단소식

93

씩씩움소식

95

수원스타그램

96

행복우체통



인인화락은 정조의 '호호부실 인인화락(戶戶富實 人人和樂)'에서 따온 말입니다. '집집마다 부유해지고 사람과 사람들이 화목하고 즐거워야 한다'는 위민군주 정조의 이상을 담고 있습니다. '인인화락'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게재된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재단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통권 24호(비매품) 발행 2018년 10월 1일 등록번호 경기 바 50071 등록일 2012년 11월 14일 등록번호 ISSN 2287-7479

발행주기 계간 발행인 박홍식 편집인 황연주 편집기획 기획홍보팀 김민기, 윤승기

발행처 수원문화재단 주소 1626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11(남창동) 전화 031-290-3600 홈페이지 www.swcf.or.kr

기획·디자인·제작 더에이치(주) 전화 031-247-5141



계간지 '인인화락'은 수원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Grow up Suwon city.

따뜻한 꿈을 품다,
성숙하게 철든 수원



효의 계승,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언제부터가 어른 아이 구분 없이 인사를 건네는 것도 좀처럼 쉽지 않은 일이 되었다. 분명 엘리베이터나 복도에서 늘 마주치는 얼굴인데도 말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어르신들께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이 눈에 띄게 줄었다. 그럴 때마나 사람들은 효가 '사라졌다', '변질됐다' 말한다. 하지만 효의 어떤 부분이 사라지고 변질됐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떤 이들은 물질만능주의, 이기주의의 팽배가 그 원인이라고들 한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사람들의 심리 변화보다 삶의 변화에서 자연스럽게 효의 개념이 바뀌었다고 본다. 과거에는 농경문화를 바탕으로 했었기 때문에, 한곳에서 오래 거주하며 두레나 품앗이 등 농사일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 모임이 활발했다. 가족의 생계와 공동체의 장래를 염려하며 서로 감내했던 기꺼이 나를 희생하던 시대다. 하지만 21세기 지식정보시대로 오면서 하는 일도 다양해지고, 핵가족이나 1인 가구가 늘면서 이사도 잦고, 경계심도 심해지면서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시대가 되었다. 서로 관계를 맺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느끼며, 내가 있어야 가족도 공동체도 있다는 개인을 우선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농경·산업시대의 전통적 사고로 보자면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비춰지지만, '부모에게 잘하는 것'을 효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는 옛날 얘기다. 부모 공경과 노인 공경 등 자녀와 젊은이들의 일방적 희생을 전제로 하는 효행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당연히 지켜야 할 자녀의 기본 도리조차 사라지는 게 안타깝다. 부모를 위한 작은 희생과 봉사는 커녕 장년이 되어서도 부모에게 손 벌리고 의지하는 자녀가 늘고 있는 것은, 이 시대가 점점 효와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 부모에게 듬뿍 사랑을 받았다면 받은 마음을 나눌 줄도 알아야 하는데, 갈수록 나누는 것은 어려워지고 내내 받기만하는 상황이다. 아직까지 한국적인 정서는 가난해도 가정과 사회를 지탱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효 문화의 공동체 정신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어르신의 짐을 대신 들어주거나 자리까지 내어주라는 말이 아니다. 공경까지는 아니지만 삶의 연장자로서 인정하는 것, 그리고 최소한 부모에게는 받은 만큼의 예를 표해야 하는 게 아닐까 싶다.

글 편집실

참다운 효를 위한
또 하나의 수도 首都

수원 화성

수원은 효원의 도시로 불린다. 조선시대 위민군주 정조의 효심이 깊이 담겨 있는 도시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수원화성을 정조의 효심이 담긴 결정체로 보기도 한다. 정조 효의 결정체라고 하는 것은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를 위해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사도세자의 묘소를 당시 수원도호부(현재 화성시 태안면 안녕리) 관아가 있는 화산(花山)으로 옮기고 수원 팔달산 일대로 천도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조의 효는 약간 문제가 있다. 아버지에 대한 개인적인 효도로 인해 국가의 엄청난 예산을 들여 수도를 옮기려고 한 것은 현재적 관점만이 아니라 200여 년 전의 관점으로 보아도 절대 옳은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수원을 효원의 도시라고 부르는 것일까? 정조가 진짜 수원으로 천도를 하려고 한 것일까? 이 두 가지가 과연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인지 이 문제의 진실을 들여다보자.

글 김준혁(한신대학교 정조교양대학 교수) 사진 수원화성박물관, 수원박물관, 수원광교박물관, 수원문화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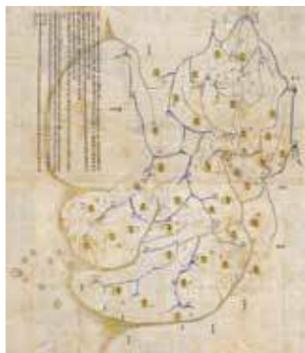
1.

정조의 진짜 효

정조는 21세기 현재적 관점에서 생각해도 정말 대단한 효자다. 조선 500여 년의 역사만이 아니라 우리 역사 전체에서도 정조는 진짜 효자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정조가 효자인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효자의 개념인 허벅지 살을 베어 부모를 위해 국을 끓여 주거나 아니면 추운 겨울날 몇 개의 산을 넘어 무릉도원을 찾아가서 복숭아를 따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다. 정조의 효는 바로 사도세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에 기반을 둔다. 억울하게 뒤주에서 돌아가신 사도세자의 불명예를 회복하고 국왕으로서의 지위를 복권해 주는 것이 사도세자를 위한 효도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정조는 몇 가지 특별한 행사를 추진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아버지처럼 군복을 입고 행차를 다니는 것이었다. 사도세자는 15세에 영조를 대신해서 대리청정을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군복을 입고 말을 타고 다녔다. 그래서 정조는 국왕이 되고 나서 사도세자처럼 외부로 행차를 할 때 곤룡포와 익선관을 쓰지 않고 군복을 입고 전립을 썼다. 그리고 1791년(정조 15)에 사도세자가 했던 것처럼 군복을 입고 초상화를 그리기도 했다. 물론 이 초상화는 사도세자를 수원으로 이전한 묘소인 현릉원 재실에 걸어놓고 살아계실 때 행하지 못한 효도를 행하겠다고 했다.

정조는 사도세자가 진정한 무인군주(武人君主)임을 강조하기 위해 아버지가 만든 18가지의 무예에 마상기에 6기를 추가해 24가지 무예로 만들었다. 이 무예서가 바로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이다. 『무예도보통지』 서문에 자신은 아버지가 한 일을 따랐을 뿐이라고 겸손하게 이야기 한다. 조선의 무예를 새롭게 정리하여 중국과 대등한 군사체제를 갖추고자 한 모든 것은 아버지 사도세자의 유업이고 자신은 그 유업을 계승한 것이라는 것을 백성들과 신료들에게 이야기해서 사도세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처럼 항상 무예를 수련하고 활쏘기를 했다. 조선 역사상 태조 이상 계와 더불어 최고의 명궁(名弓)으로 평가받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정조가 대궐 밖으로 행차를 할 때 반드시 군복을 입고 말을 타고 다녔다. 그 이유도 사도세자가 온양으로 행차할 때 군복을 입고 말을 타고 갔기 때문이다. 가마를 타거나 곤룡포를 입을 수 있었음에도 사도세자는 군복을 입고 직접 말을 몰았는데, 이러한 행동이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 정조는 아버지를 따라 늘 군복을 입고 말을 타고 다녔다. 이것이 바로 정조 효의 핵심이다. 정조가 이러한 효를 실천하기 위한 터전으로 선정한 곳이 바로 수원이었다.



수원부지도

2.

정조는 왜 수원신읍치를 만들었는가?

정조는 1789년(정조 13)에 수원도호부 관아 일대에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를 천봉하고, 관아를 비롯한 읍치 전체를 현재의 수원시 팔달구 신평동 일대의 팔달산 동쪽 지역으로 이전했다. 도시를 옮긴지 4년 이 지난 1793년(정조 17) 1월 정조는 수원도호부를 화성유수부로 승격시키면서 화성유수부에 장용영외영(壯勇營外營)을 신설했다. 도호부는 정3품 부사가 다스리는 큰 고을이었다. 하지만 유수부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유수부는 정2품 이상의 유수가 다스리는 지역으로 한성부와 버금가는 고을이었다.



반계수록

정조는 수원이라는 도시 이름을 화성(華城)으로 고쳐 부르게 하였다. '화성(華城)'이란 이름의 화(華)는 3가지의 의미가 담겨있다. 바로 부유함(富), 건강하게 오래 살기(壽), 인구번성(多男子)의 의미이다. 이 3가지의 뜻이 담긴 화(華)자를 넣어 도시를 만들고, 진정 아버지가 묻혀 있는 새로운 고향인 수원을 화(華)의 도시로 만들고자 한 것이다. 화성유수부의 승격은 1년 뒤에 있을 화성축조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었다. 화성 축성은 왕권을 강화하여 민생안정을 추구하는 정조의 장기적인 정국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었다. 이를 위해 정조는 화성유수부를 강력한 정치적 군사적 배후도시로 만들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 화성유수부 승격과 더불어 장용외영을 신설한 것이다. 사실 정조가 수원 팔달산 일대를 선택한 것은 실학의 비조라고 불리는 반계 유형원의 『반계수록(磻溪隨錄)』을 읽었기 때문이다. 반계 유형원은 팔달산 일대가 충청, 전라, 경상도에서 한양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는 천하 교통의 요지이고, 이곳에 성곽을 쌓는다면 한양을 보호할 수 있는 대도시(大都)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정조는 이 글을 읽고 오래전부터 수원 팔달산 일대를 유심히 조사했고, 마침내 때가 되어 효종이 돌아가신 이후 천하의 길지로 알려진 수원 화산으로 아버지의 묘소를 옮기고, 그 일대에 있는 관아와 각종 공공기관 그리고 백성들의 집을 팔달산 일대로 이전하게 했다.

정조는 화성유수부에 장용외영을 설치하여 화성유수로 하여금 장용외사를 겸하도록 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는 조선 정치사에서 매우 파격적인 일로 지방의 일개 고을이 국왕의 친위도시로 거듭나는 일이기도 했다. 정조는 화성유수부를 신설하면서 수원지역이 자신을 비롯한 왕실의 고향과 같이 중요한 곳이며 따라서 지위를 격상시켜야 하며 수원지역의 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조는 초대 화성유수로 1790년부터 좌의정으로 독상(獨相)체제를 유지한 채제공을 임명했으니 화성유수부와 장용외영의 신설이 갖는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즉 국왕을 제외한 최고의 고위관료를 특지로 화성유수에 임명한 것은 앞서 말한바와 같이 정조 자신이 추진하는 왕권을 강화해 새로운 경장정책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 신설되는 화성유수부의 수장이 조정 내에서 가장 비중 있는 인물이 임명되어야만 그에 따른 다양한 정책 지원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총리대신 채제공



장용영 편액 탁본

3.

화성을 또 하나의 수도로 건설하라!

정조는 화성유수부에 장용영외영을 설치하면서 그 이후 장기적인 계획을 준비했다. 바로 수원을 새로운 또 하나의 수도로 만드는 일이었다. 기존 수도인 한성부와 함께 자신이 머물면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수도를 말이다. 이를 위해 대대적인 화성 건설을 추진했다. 정조가 더 일찍 화성건설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794년(정조 18)에 시작한 것은 정조에게 숨은 뜻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를 수원으로 이전하고 세자를 얻었다. 훗날 손조가 된 세자가 태어난 해는 1790년이다. 정조는 세자가 15세가 되면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上王)이 되어 수원에서 머물기를 희망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도세자의 복권 때문이었다.

사도세자가 뒤주에서 죽고 난 후 영조는 사도세자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못하게 막았다. 사도세자에 대한 충성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자에 대한 칭찬을 해도 그것을 역모라고 규정지를 정도였다. 그리고 세손인 정조에게 훗날 국왕이 되었을 때 절대로 사도세자를 역적의 죄목을 벗기고 국왕으로 추존하지 못하게 하는 특명을 내렸다. 이러한 할아버지 영조의 명령 때문에 정조는 자신이 국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사도세자를 국왕으로 높이 받들지 못했다. 조선시대 국왕이 돌아가신 자신의 생부(生父)를 국왕으로 받드는 일이 실제로 존재했다. 인조가 자신의 부친 '정원군'을 원종(元宗)으로 추존하여 종묘에 위패를 봉안하게 했다. 정조 역시 사도세자를 이처럼 추존하고 싶었으나 할아버지 영조의 엄명으로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정조는 묘책을 생각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아들이 15세가 되면 국왕의 지위를 물려주고 자신은 상왕이 되는 것이다. 새로 국왕이 된 세자가 할아버지인 사도세자를 국왕으로 추존하게 하는 방식을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머물 수원에 성곽 쌓기를 1794년에 시작한 것이다. 성곽이 3년 만에 완성될 것이라 생각하지 못하고 10년 걸릴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1794년에 시작하면 1804년에 완공이 되고, 그 해가 바로 세자가 15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조가 계획한 모든 것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정조는 화성행궁의 규모를 대대적으로 늘리며 수원을 상왕의 수도로 만들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했다. 한양은 주상(主上)의 수도, 수원(화성)은 상왕의 수도로 정조가 계획한 상왕은 주상보다 훨씬 권한이 센 것이었다. 상왕은 조선 모든 관리들의 인사권과, 사법권 그리고 군대통수권을 갖는 것이다. 이는 조선에 전례가 있었다. 바로 태종이 세종에게 국왕의 지위를 물려주었을 때의 상황이었다. 이러한 태종과 세종대의 역사를 정조는 그대로 계승하고 싶었던 것이다. 여기에 더해 수도 한양은 이미 노론으로 대표되는 기득권들이 좌지우지하는 지역이었다. 국왕 정조가 아무리 개혁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이들 기득권이 따라주지 않고 오히려 맞대결을 벌인다면 정조로서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정조는 완전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수원을 자신의 개혁의 터전으로 삼아 조선 전체를 개혁하는 또 하나의 수도로 만들고자 원대한 꿈을 품고 화성을 축성한 것이다. 🏠



화성도



화성성역의궤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자리에서 시를 지양지 않았던 곳으로
피었다. 세계문화유산이라는 화려한 수식어보다도 수원화성의
정경은 어둠처럼 차가워진 듯하다. 아버지 어머니를 사당인
아들의 마애이마, 백성들의 소리를 가까이에서 들은 자 했던 어진
명군이 마애이마, 민중에 배아 이 곳에 난민이었다.

정조와 혜경궁 홍씨가
머물던 그곳

이산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진

수원화성을 걷다

글 강일서 자료 참고 수원시, 수원화성박물관 도록 사진 수원시, 수원문화재단

King Jeongjo 'Yi San', Dreaming of another world

꽃다운 나이에 반역죄로 아버지에게 죽음을 당했던 세자, 그의 이름은 이선이자 사도세자다. 이선은 조선 후기 21대 왕인 영조의 둘째 아들이다. 처음에 영조는 세자를 아꼈지만, 당파 싸움에 휘말린 세자를 포함한 글을 읽고 몹시 화가 나 그에게 자결을 명했다. 이선은 용서해 달라고 빌었으나 영조는 그를 뒤주에 가둬 버렸다. 그 당시 11살 어린 세손은 “할바마마, 아바마마를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울며 부탁했지만, 영조는 손자의 말을 무시했고, 8일 후 뒤주에 갇힌 세자(이후 사도세자로 불리다 1899년 장조로 추존)는 굶어 죽고 말았다. 지금으로부터 246년 전의 일이다. 이때, 이선은 겨우 28세였고 죽어가던 아버지 옆에서 가엾게 울고 있던 어린 세손은 조선 22대 왕인 '이산 정조 대왕'(1776~1800, 재위)이다. 아버지의 죽음을 그대로 목격했으니, 그 충격이 실로 감당하기 힘들었으리라 짐작한다. 그러나 정조는 누구보다 강했다. 이후 영조가 83세로 승하한 후 뒤를 이은 정조는 아버지의 비참한 모습을 직접 보았기에 더욱 극진한 효심을 보인다. 정조는 1776년 3월 즉위 당일 빈전 문밖에서 대신들을 소견하면서 12년

넘게 가슴속에 담아 두었던 한마디를 꺼냈다. “과인은 사도세자(思悼世子)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한 뒤 왕위에 오르자마자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에 맞서 사도세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힘썼다. 사도세자의 묘소를 화산으로 이장하고 그 이름을 ‘현명하신 분을 융성스럽게 받든다’는 의미의 현릉원으로 바꾸었다. 이 과정에서 수원부위 읍치(조선시대 지방 고을)의 중심을 팔달산 아래로 이전하고 화성행궁(行宮-정궁을 나와 임시로 머무르는 궁)과 수원화성을 축성했는데, 이것이 오늘날 수원의 기틀이 되었다. 반듯하게 쌓아올려진 성문, 포루, 봉돈 등 각각의 시설물에는 고유한 아름다움이 남아 있고, 지형을 따라 이어진 성벽은 유려하게 뻗어있다. 수원화성 곳곳에는 정조 자신의 왕권 강화 의지와 함께 당시에는 파격적인 정책과 획기적인 아이디어들을 이곳 축성에 쏟아 부었다. 정조가 완성된 수원화성을 보고 “아름다움이 적을 능히 이긴다.”며 크게 기뻐했다는 기록은, 아름다운 수원화성이 그 마음을 즐겁게 했음을 느끼게 한다. 정조대왕의 숨결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수원화성을 누비며, 그때를 떠올려본다.





●
장안문

먼저 서울에서부터 수원으로 정조가 능행을 하면서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 통과했던 첫 번째 문이자 수원화성의 북쪽에 위치한 정문이다. 장안(長安)은 중국 옛 왕조의 수도(현재 시안)를 말하며 그 이름을 모방한 것이다. 조선 전기에 세워진 서울 남대문에 필적할 만한 당당한 회관을 갖추었고, 남대문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방어시설을 갖춘 진일보한 건축의 성문이다.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910

●●
팔달문

수원화성의 남쪽 문으로 이름은 서쪽에 있는 팔달산에서 따 왔다. 1794년(정조 18)에 건립했으며, 문루의 정면은 5칸이고 측면은 2칸으로 되어 있다. 전면에는 반달 모양의 웅성을 세웠다. 수원성 안쪽에 있는 여러 건물 가운데 가장 크고 화려하며, 발달된 조선 후기의 성문 건축 형태를 고루 갖추고 있는 문화재다.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780

●●●
화서문과 북수문(화홍문)

수원화성 서쪽의 남양만과 서해안 방면으로 연결되는 통로 역할을 했던 문으로 독특한 구조물과 함께 일대의 경치에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다. 석축으로 된 무지개 문 위에 단층 문루를 세웠으며, 보통의 웅성과는 달리 한쪽이 터진 웅성이 있다. 수원시를 상징하는 마크의 모델이 바로 이 화서문이다. 북수문(화홍문)은 북쪽에 있는 수문으로 흔히 화홍문이라 부른다. 아름다운 무지개 문이라는 뜻이며, 동북각루(방화수류정)와 어우러져 성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관을 보여주는 곳이다.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안동 334 / 북수문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북수동 9000-1

●●●●
동북각루(방화수류정)

수원화성의 다양한 시설물 중 '각루'라 이름 붙여진 곳은 쉽게 정자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 중 동북각루는 주위의 아름다운 경관과 어우러진 곳으로 화성의 여러 시설물 중에서 가장 빼어난 곳이다. 동북각루는 '방화수류정'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꽃을 쫓고 버드나무를 따라가는 아름다운 정자라는 뜻이다. 용머리 바위 위에 있는 누각으로 전투 지휘용보다는 심터로서 더욱 많이 사용됐다. 정조는 평소에 용(龍)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도세자 뒷자리를 반룡농주(盤龍弄珠·용이 구슬을 희롱하는 형국)의 형상을 한 수원을 선정했다. 정조가 용을 좋아하게 된 이유는 왕을 상징하는 동물이기도 하지만, 아버지가 곧 태몽에 용이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용은 사도세자와 정조, 부자(父子)간의 연결고리라 할 수 있다.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천로 392번길 44-6

●●●●●
용릉·건릉

용릉은 사도세자(장조)와 그의 부인 혜경궁 홍씨(경의왕후)의 무덤이다. 세종의 영릉 다음 가는 명당으로 손꼽히는 곳이기도 하다. 용릉은 원래 양주의 배봉산에 있던 영우원을 수원의 화산으로 옮겨 현릉원이라 했다. 합장릉인 용릉은 병풍석을 세우고 모란과 연꽃무늬를 새겼다. 석등은 전기의 8각형과 숙종, 영조대에 등장한 4각형 석등의 양식을 합한 새로운 양식으로 건릉과 예릉의 기준이 되고 있다. 정조는 현릉원을 마련할 때 온갖 정성을 기울여 창의적으로 만들었다. 건릉은 조선 22대 정조와 그의 부인인 효의왕후 김씨의 무덤이다. 원래 건릉은 현릉원의 동쪽 언덕에 있었으나 효의왕후가 죽자 풍수지리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서쪽으로 옮기기로 하고 효의왕후와 합장했다. 무덤은 한 언덕에 2개의 방을 갖추었으며 난간만 두르고 있고, 그 외의 모든 것은 용릉의 예를 따랐다.

주소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481번길 2(안녕동)

●●●●●
행궁

그리고 화성행궁은 정조가 수원 행차 시 머물렀던 임시거처로 아버지 장조의 능을 참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쉬어갔던 곳이다. 임금이 지방행차 시 머무는 행궁들이 많지만 화성행궁이 가장 규모가 크고 아름다웠던 곳으로 표현된다. 왕이 머물지 않는 평상시에는 유수부(지금의 시청) 건물로 활용했다. 어머니 혜경궁 홍씨를 뵙고 문안인사를 드리는 정조의 모습과 왕의 집무실, 혜경궁 홍씨의 처소 등을 볼 수 있다. 그중 장락당은 1795년에 정조가 수원행차 때에 혜경궁 홍씨의 침전으로 사용되었던 건물로 1794년 봉수당의 남쪽에 세워진 건물이다. 봉수당은 원래 이름이 정남헌이었는데 정조가 모친 혜경궁 홍씨의 회갑 잔찬연을 이곳에서 베푼 후,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봉수당으로 부르며 '효'의 상징적인 공간이 되었다.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825(남창동)

●●●●●●
서장대와 동장대(연무대)

1795년 윤 2월 12일, 정조는 현릉원(용릉)에서 아버지 사도세자의 참배를 마시고 서장대에 올라 성을 수비하고 공격하는 주간훈련과 야간훈련을 직접 지휘했다. 서장대는 정조가 친히 군사훈련을 지켜보던 곳으로 팔달산 정상에서 수원 시내가 훤히 내려다보던 곳이다. 다른 한 곳 동장대는 지금은 연무대라고도 부르며 역시 훈련을 하던 곳이다. 이곳은 당시 정조의 친위부대 장용외군이 주둔하며 무예를 연무(研武)하던 곳이다. 정조 즉위 후, 존현각에 처들어온 자객으로 인해 그는 군사를 배로 늘렸다.

주소 서장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55-23 / 동장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103번길 20 연무대

1	1 장안문
2	2 동북각루(방화수류정)
3	3 용릉·건릉
4	4 화성행궁 장락당

수원화성에 너무나 많은 건축물이 있지만, 군사방어와 건축학적인 의의보다 정조와 사도세자, 혜경궁 홍씨와 관계된 이야기가 있는 또는 능행차 때 머물렀던 곳 위주로 둘러보았다.

끝으로 서울에서 국도를 타고 수원 오산방향으로 가다보면 안양, 의왕을 지나서 수원과의 경계인 고개를 넘게 된다. 그 당시 고개의 제일 높은 마루턱인 이곳이 예전 명칭은 사근현(沙斤峴)이었으며, 미륵당이 또는 미륵당 고개로 불렸으나 지금은 '지지대 고개'로 불린다. 정조대왕의 효심이 느껴지는 지지대(遲遲臺) 고개는 느리고 더딜 '지(遲)'자를 쓴 지지대는 정조대왕이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현릉원)을 참배하기 위해 지나고 돌아오던 언덕에 위치한다.

“이제 이 고개를 넘어가면

선왕(아버지·사도세자)께서 잠들어 계신

화산(花山)이 보이지 않는다.

천천히 가거라. 아주 천천히...”

화산의 현릉원 참배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올 때는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에서 이 고개에서 어가를 멈추어 서게 하고 한참을 머무르다 부친의 묘역이 있는 화산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이 고개를 넘어서면 아버지 장조가 묻힌 현릉원이 있는 화산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또 어가에 올라서도 화산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눈을 돌리지 않아 행차가 자주 늦어져 이 고개를 느리고 더딜지(遲) 두자를 붙여 '지지대(遲遲臺)고개'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1796년 수원축성 완공 그로부터 불과 4년 후, 정조는 수많은 의문을 남기고 48세의 나이로 혜경궁 홍씨보다 먼저 승하했다. 인재 등용과 탕평책 실시 등 조선을 다시 일으켜 세운 정조는 귀감이 될 만한 군왕이었다. 정조대왕의 죄책감과 슬픔이 만들어 낸 효심과 성군이 되고자 했던 치열한 노력의 흔적들은 이제 모두 세계유산이 되었다. 역적의 아들이 왕이 된 불안감과 측근 세력을 키우고자 만든 규장각이 있는 창덕궁, 지금은 바로 가까이 누워 함께 영면하고 있는 용건릉, 그리고 정조임금의 철학과 꿈이 새겨진 수원화성이 그것이다. 정조임금이 써 내려간 파란만장한 역사의 산물은 이제는 세계적으로 사랑받으며, 그의 찬란했던 삶은 곳곳에 깃들어 있다. 🏰



화성행궁



전주 유씨 효자 정려각

수원에는 정조대왕 말고도 효원의 도시답게 다른 효자들도 많았다. 과거에는 효자들에게 비석에 효자임을 새긴 '효자비'나 대문 위나 전각 안에 현판으로 걸어 놓은 '효자정려'를 통해 효 사상을 널리 알렸다.

TIP

수원박물관 경내에 자리한 효자정려

많은 효자들이 있었지만, 이제 흔적으로 남아 있는 것은 수원박물관 마당 한 편에 서 있는 정려각이다. 정려각이란 전각을 짓고 효자나 충신, 열녀 등의 덕을 칭송하고자 세우는 붉은 문을 말한다. 이 정려각은 전주 유씨 가문에서 기증한 것으로, 영조 19년인 1743년 우승지 류태명과 순조 12년인 1812년 류태명의 증손자인 호조참판 류의의 효자정려이다. 한 집안에서 이렇게 대를 이어서 정려를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그 집안의 내력이라는 뜻이다. 류태명(1666~1716)의 자는 도휘, 호는 현산옹, 본관은 전주이다. 류태명은 29세 때 별시에 합격해 출사했으며, 여러 관직을 거쳐 우승지를 지냈다. 이 정려각은 원래 호매실택 지개발지구내에 위치했으나, 그의 후손인 류원상이 기증하여 수원박물관으로 이전 복원했다.

위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265 수원박물관

고려 시대 효자 최루백

고려 시대 호장을 지낸 수원 최씨의 시조 최상지의 아들 최루백이 있다. 최루백이 고려 시대 의종 때 과거에 급제해 '한림학사' 등을 거치며 지내고 있던 중 어느 날, 아버지 최상지가 사냥을 나갔다가 호랑이에 잡혀 먹혔다는 사실을 듣게 된다. 그는 자식 된 도리로서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도끼를 들고 홀로 산으로 올라가 호랑이의 자취를 더듬어 가던 중에 이미 아버지를 잡아먹고 배가 불러 누워 있는 호랑이를 발견한다. 이때 최루백은 “네 어찌 하늘같이 받들고 있는 나의 아버지를 해쳤느냐, 내 너를 잡아먹어야겠다.”라고 꾸짖은 후 도끼를 들어 호랑이의 머리를 내리치고는 배를 갈라서 아버지의 뼈와 살을 수습하여 흥법산에 안장한다. 그리고 무덤 곁에 여막을 짓고 3년간 시묘살이를 했다. 그때 최루백의 나이가 15세에 불과했다고 하며, 정조는 최루백의 효의 사상을 기리며 그가 태어난 마을을 효자동으로 명명했고, 그의 자손들에는 부역을 면해 주었다고 한다. 현재는 최루백의 사패지였던 화성시 봉담읍에 효자각이 남아있다.

위치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분천리 165-1

자신의 삶을 내어준 김성배 효자비

당수동 지역에서 출생한 김성배(金成培)는 어려서 어머니 이씨가 중환병으로 인해 오랫동안 병수발을 정성껏 했음에도 몸이 낫지 않아 사람의 고기를 먹으면 효험이 있다는 말을 듣고 실천에 옮긴다. 자신의 허벅다리 살 일부를 도려내어 어머니께 드시게 하여 어머니의 병환이 호전되었고, 1922년 효자비를 세워 그의 효성을 널리 알려 귀감이 되게 했다. 지금의 경기대명고등학교 앞에 세워져 있던 효자비를 수인선 도로가 확장되면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대명고등학교 안에 들여다 놓았다. 이 외에도 호매실동 청주 한씨 한효의에게 교종황제가 효자문과 교지를 내려 그 효행을 칭찬했으나 현재는 철거되어 그 정신만 전하고 있다.

위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598번길 3-24
경기대명고등학교



송재련



김용기



유정임

아들 이산으로, 왕정조로
백성을 사랑하고 효심 가득했던
그 정신을 이어가며

조선 제22대 정조대왕의 효심과 부국강병의 원대한
꿈으로 축성된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을 알리고,
수원의 대표적인 전통문화 관광축제로 자리 잡은
'수원화성문화제가' 올해 제55회를 맞았다. 정조대왕
능행차, 혜경궁 홍씨 진찬연, 아간무예공연 '아조',
수원등불축제 등 다채로운 행사들로 꾸러지는데, 그동안
애정 어린 마음으로 행사를 준비해왔던 사람들을 만나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나눴다.

취재 윤승기 기획홍보팀 글 강일서, 권유진 사진 김오늘



01

“저는 정조 같은 아들이 있다면 걱정되지만 훌륭한 아들을 키웠다는 생각에 뿌듯하고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조대왕의 효와 애민정신을 강조하며 성장한 수원이 여전히 제 기억에는 효의 도시로 남아 있습니다.”

어깨가 무거웠던 만큼 보람도 컸던 시간

수원화성문화제 기획 전임자
송재련 동장

어느덧 30년 공직자 생활이 빠르게 지나가고 올해 11월 임기가 끝난다는 송재련 동장(현 호매실동장). 그는 수원화성문화제를 받쳐 주고 끌어갔던 실무자로서 6번의 행사를 진행하며, 많은 시간도 들이고 힘들었지만 공무원 생활 동안 늘 기억에 남아 있다며 운을 떼다.

“제가 수원화성 축제를 담당했던 게 벌써 20년은 더 된 것 같습니다. 처음 수원화성문화제에 참여했을 때가 1997년으로 기억하는데 초반에는 지금 같은 규모는 아니었어요. 1996년에 수원화성 축성 200주년 기념으로 대대적인 행사를 기획했는데, 그때부터 지금 규모의 능행차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송재련 동장은 1997년부터 2002년까지 6년 동안 수원화성문화제에 참여했다. 초반에는 담당 실무자로서, 나중에는 책임자로서 맡은 직무는 달랐지만 똑같이 어깨가 무거웠다고. 그가 주로 맡은 역할은 능행차 행렬을 기획하는 일이었다. 지금의 능행차가 자리 잡기까지 그가 처음에 기획했던 것은 원행 을묘정리의궤(園行乙卯整理儀軌)에 나와 있는 8일간의 화성행차를 최대한 똑같이 구현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나 사실상 시간과 예산, 다른 지역과의 연계와 교통 통제 등 8일 동안 행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그때의 능행을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 누구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수원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능행차 재현에 참여할 시민체험단을 꾸리고, 연합풍물단 500여 명을 섭외하며 각 참여하는 단체들의 깃발부터 신경 써야 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능행차 행렬 중간 중간에 보면 행렬이 끊어지지 않도록 박자를 맞춰 우리나라 전통악기를 불며 행진하는 그룹을 볼 수 있는데 취타대라고 부릅니다. 제

가 능행차를 기획하면서 구인과 학교에서 취타대를 섭외하고 배치해 음악에 맞춰 행진하던 그 모습이 항상 기억에 남습니다. 또 수원 홍보를 위해 서울에서 세종문화회관 쪽으로 편도차선을 막고 광화문에서부터 프레스센터 사거리까지 짧지만 능행차를 재현하며 수원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정말 보람됐죠.”

아직도 그 시간을 생각하면 뿌듯하고 아쉬움도 많이 남는다는 송재련 동장. 그는 행사를 여러 차례 진행했을 때도 지금도 잘 개선되지 않는다는 행렬이 워낙 길고 퍼포먼스를 진행하다 보면 행렬이 중간 중간 끊어지는데, 끊임 없는 능행차를 재현해보고 싶다고 한다. 사실 그 당시에도 왕이 능행을 하는 것은 보통일이 아니었다. 능행에 참여하면서 죽기도 했었으니 서울에서 화성까지 13번 능행한 정조는 기록에도 있지만 대단했다. 목숨에 위협을 받으면서도 왕권강화와 백성을 위해, 그리고 아들로서 아버지 장조(사도세자)와 어머니 혜경궁 홍씨를 위한 그의 정신은 본받을 만하다고 덧붙였다.

“저는 정조 같은 아들이 있다면 걱정되지만 훌륭한 아들을 키웠다는 생각에 뿌듯하고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조대왕의 효와 애민정신을 강조하며 성장한 수원이 여전히 제 기억에는 효의 도시로 남아 있습니다.”

송 동장은 작년부터 처음으로 서울 창덕궁에서 지금 화성의 용릉까지 전 구간을 재현하게 되었는데 쉬운 일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부족하지만 매년 더 즐겁고 새롭게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수원시와 재단 그리고 함께 꾸미는 시민들에게 진정한 능행차의 정신을 알리고 싶다는 당부의 말을 남겼다.

#02

“수원화성문화제에 참여하면서 전국에서 온 많은 시민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사진 한 장 찍으려고 피약벌에서 긴 줄을 서 계셨고, 선물을 전해주시기도 하셨죠. 쉽지 않은 일도 있었지만, 뿌듯하고 즐거웠어요.”



10년 동안 헤아린 혜경궁 홍씨의 마음

제12대 혜경궁 홍씨
유정임 씨

지난 2014년, 제12대 혜경궁 홍씨로 선발된 유정임 씨는 2017년까지 정조대왕 능행차에 참여해 수원을 홍보해왔다. 오랜 시간 혜경궁 홍씨 역할을 준비했다는 그녀에게 지난 4년은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다. “수원시민으로서 정말 영광스러웠어요. 정조대왕 능행차는 수원을 대표하는 행사이자, 제가 자란 고향을 알릴 수 있는 뜻 깊은 자리니까요. 사실 10년 전부터 혜경궁 홍씨 역할을 맡고 싶었는데 나이제한이 있어 2014년에야 처음 도전할 수 있었어요.” 선발대회를 준비하며 혜경궁 홍씨의 일생에 대해서도 자세히 공부했다는 그는 수원행궁 봉수당에서 열린 진찬연 행사 때 혜경궁 홍씨가 느꼈을 벅차오르는 감격을 상상하며 눈물을 흘렸다. 진찬연은 조선시대 왕이나 왕비가 육순, 칠순, 팔순 등을 맞았을 때 거행하는 행사로 정조대왕은 7박 8일의 능행차 일정 중 혜경궁 홍씨의 진찬연을 가장 핵심일정으로 잡고 하루 내내 거행했다. 진찬연이 끝나면 주변의 노인들에게 양로연을 베풀었으며, 가난한 백성들에게 쌀도 나눠주며 모든 백성이 함께하는 여민동락(與民同樂)의 축제를 열었다. “수원화성문화제에 참여하면서 전국에서 온 많은 시민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혜경궁 홍씨와 사진 한 장 찍으려고 피약벌에서 긴 줄을 서 계셨고, 선물을 전해주는 분들도 계셨죠. 쉽지 않은 일도 있었지만, 뿌듯하고 즐거웠어요.” 김치명인으로도 잘 알려진 유정임 씨에게 전통문화를 알리고, 지키는 일은 남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수원화성문화제가 전 세계적인 축제가 되길 바란다는 그는 새롭게 선발되는 혜경궁 홍씨에게도 응원의 말을 전했다. “남편과 사별하고 시아버지로부터 아들을 지키려 했던 혜경궁 홍씨의 마음을 헤아리며 임해주신다면 이를 보는 관객들의 마음에도 깊은 울림을 줄 것이라 생각해요. 수원화성문화제가, 정조대왕 능행차가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조대왕의 정신을 널리 알린 지난 4년

제12대 정조대왕
김웅기 씨

평생을 수원에서 살아온 김웅기 씨는 고향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다.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정조대왕의 충효사상에 대해 듣고 자란 그는 제12대 정조대왕 선발대회에 참가해 무려 41명의 경쟁자를 제치고 정조대왕 역으로 선발됐다. 성우 못지않은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진 김웅기 씨는 과연 정조대왕답게 인자하면서도 강인한 인상을 지녔다. 지난 4년 동안 수원화성문화제와 각종 전통문화행사에 참여하며 바쁜 일정을 보낸 그는 “체력적으로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고향을 알린다는 자부심에 행복했던 시간이었다”고 회상했다. “전통의상이 두껍고, 여러 겹을 입어야 해 날씨가 더운 날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특히 전 땀이 유난히 많아 더 어려웠죠. 하지만 능행차를 할 때 시민들이 환호해주시면 그 뿌듯함과 자랑스러움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또 저뿐만 아니라 능행차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이 일을 고향을 알릴 수 있는 봉사라고 생각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임해주셨어요. 아무런 대가 없이 수원을 알리기 위해 모인 열정적인 분들과 함께 일하게 돼 더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 김웅기 씨에게 정조대왕의 충효사상은 더욱 특별하다.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야말로 나라를 위한 일이고,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힘이 된다고 생각해요.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사회가 삭막해지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잊고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 수원화성문화제를 통해 이 같은 인식이 조금이나마 개선되길 바라요.” 4년간 정조대왕 역할을 통해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는 그는 수원화성문화제가 발전하기 위한 쓴 소리도 전했다. “수원에서 하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더 많았어요. 수원화성문화제가 더 큰 축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외부의 관심도 중요하지만, 수원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참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수원시민들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축제가 되길 바랍니다.”

#03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야말로 나라를 위한 일이고,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힘이 된다고 생각해요. 수원화성문화제를 통해 이 같은 인식이 조금이나마 개선되길 바라요.”



Another capital city for genuine filial duty

Suwon Hwaseong

Suwon Hwaseong is also known as the city of filial duty. This is because the city embraces the filial minds of King Jeongjo who was the famous king in the Chosun Dynasty era. Numerous people regard Suwon Hwaseong as the crystal of King Jeongjo's filial mind. The reason we call King Jeongjo's filial mind a crystal is because King Jeongjo tried to move the tomb of his father, Prince Sado which used be at Dongdaemun-gu, to Seoul and Hwaseong which was the location of Suwon city protection office (current Annyung-ri, Taeon-myeon, Hwaseong city), and to relocate the capital to the vicinity of Suwon Paldalmun Gate mountain. If this is true, King Jeongjo's filial duty was a bit problematic. This is because it was not a fair thing absolutely to move the capital city, spending a great fortune of the national budget, just due to the King's personal filial duty to his father, not only in modern perspectives but also the perspectives of two centuries of history before. Then why do Koreans call Suwon the city of filial duty? Did King Jeongjo really try to relocate the capital city to Suwon? We will dig into the truth of this issue, to find out whether these two issues are mutually connected.

Written by Kim Joon Hyuk. (Hanshin University, King Jeongjo Liberal arts College Professor)



The True Filial Duty of King Jeongjo

King Jeongjo was a great filial son from a modern perspective, in the 21st century. King Jeongjo must be the genuine filial son not only in 5 century's of history of the Chosun Dynasty but also throughout the whole Korean history. However, what makes King Jeongjo a filial son is not the usual concept of a filial son, as we know it, such as cutting off thigh flesh to make soap for his parents, or to find out the Eastern Shangri-La over several mountains to collect and bring home peaches in the cold winter. King Jeongjo's filial duty is merely a recovery the Paldalmun Gate in honor of Prince Sado. He thought it was his filial duty to recover his honor for Prince Sado, who died in a wooden rice chest under a false accusation and therefore was unable to resume his father's position as king.

Hence, King Jeongjo promoted several special events. One of them is wearing a military uniform, like his father did, when traveling out of the palace. Prince Sado, when he started being a proxy regent on behalf of King Youngjo at the age of 15, rode on a horse in his military uniform. Accordingly, after King Jeongjo's accession to the throne, he did not wear a king's costume but wore a military uniform and a soldier's felt hat, when going out of the palace like Prince Sado did. And in 1791(King Jeongjo 15th year) he had his portrait painted wearing a military uniform, like Prince Sado did. Of course, the portrait was posted in the ritual room in Hyunneungwon which is the relocated tomb of Prince Sado in Suwon Hwaseong, for the performance of filial duty which the king could not offer while his father was alive.

King Jeongjo, in order to emphasize that Prince Sado was a genuine warrior as governor, added 6 kinds of horseback arts and 18 martial arts designed by his father, to make it 24 kinds of arts in total. These martial arts are Martial art diagram in common spirit (武藝圖譜通志)?. At the introduction to Martial art in common spirit?, the king humbly said that he followed the masterworks of his father. By telling this to all his people and the officials, that everything related to rearranging the martial arts of The Chosun Dynasty in order to be equipped with a military system on equal footing with China, was the unfinished work of his father Prince Sado, and he was just succeeding with the teachings of his late father, when he sought to recover the honor of Prince Sado. Hence King Jeongjo always practiced Martial arts and archery, like his father Prince Sado did. It is because of this that he was reputed as the best master archer, together with King Taejo Lee Sung-Gye over the entire history of the Chosun Dynasty.

When King Jeongjo traveled out of the palace, he always wore a military uniform on horseback. The reason was because Prince Sado wore a military uniform on horseback when he traveled to Onyang. Though he could not ride into Paldalmun Gate or wear a royal robe, Prince Sado wore a military uniform on his horseback. King Jeongjo, considered his thinking and behavior was significant, and therefore always wore a military uniform on horseback, following his father's tradition. This is the core of King Jeongjo's filial mind. The base that King Jeongjo selected for fulfill his filial duty was Suwon Hwaseong.

Why did King Jeongjo established a new government office in Suwon Hwaseong?

In 1789(King Jeongjo the 13th), transferred the tomb of his father Prince Sado to the vicinity of the government office in Suwon city's police office, and relocated the whole government office town including the government office to east of mountain Paldalmun Gate which is currently Sinpung-dong, Paldal-gu, Suwon Hwaseong city area. In January 1793(King Jeongjo the 17th) after 4 years of relocating the city, King Jeongjo elevated Suwon Hwaseong city's Police office to Suwon Hwaseong police headquarters, and established a strong & fortified remote barracks at Suwon Hwaseong police headquarters. The city's protection office was a big town governed by a governor of the hierarchy of 3-1 grade?, but could not match the police headquarters. The police headquarters is the area governed by 3-1 grade? Or a higher government bureau as a city second to only Hansung city. King Jeongjo renamed Suwon city as Hwaseong(華城). The letter 'Hwa(華)' has three meanings, comprising wealth(富), long life with health(壽) and an exuberant. He created the city with the name containing the letter 'Hwa' which has these three meanings, and sought to make Suwon, his new hometown where his father was buried, as the city of 'Hwa'.

He upgraded Hwaseong police headquarters and this was the preparatory work for the construction of The Hwaseong Fortress which commenced after one year. The construction of Hwaseong Fortress was the project to establish the groundwork for the long term operation of politics, for King Jeongjo who sought to strengthen his royal power and to stabilize a public welfare

system. For this purpose, it was necessary for King Jeongjo to make Hwaseong police headquarters as the strongest political and military vicinity. Hence, he established the Strong & fortified remote barracks concurrently with the upgrade of Hwaseong police headquarters.

In fact, the reason why King Jeongjo selected Suwon's Paldalmun Gate mountain area was because he read Bangye compilations written by Bangye Yoo Hyung Won who is a reputed founder of the Korean Realist School of Confucianism. Bangye Yoo Hyung Won predicted that the Paldalmun Gate mountain area would be the most important place for nationwide traffic at the street corner, leading to the capital city from the southern provinces of Chungchung, Jeolla and Gyungsang, and a fortress established here would be the grand place for protecting the capital city. Having read this book, King Jeongjo has closely researched the Paldalmun Gate mountain area since ancient history. Eventually, he had his time after Hyojong passed away. He moved his father's tomb to Suwon Hwasan which is known as the propitious site (land in good location) of the world, and ordered the government office, various public institutions and peoples' home to the vicinity of Paldalmun Gate mountain area.

King Jeongjo established these Strong & fortified remote barracks in Hwaseong police headquarter and let Hwaseong and permitted the police protection headquarters to take a dual position as head of these remote barracks. This was a very unconventional event in the political history of the Chosun Dynasty, whereby a regional town was reborn as the city directly under the King's supervision. King Jeongjo, upon establishing Hwaseong police protection

headquarter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he defense the Hwaseong Suwon area and the appropriateness of upgrading the status of it thereby, as the area is an important place like the hometown for the royal family including himself.

The fact that King Jeongjo nominated Choi Je Gong who was the only prime minister with another position vacant since 1790, as the initial head of Hwaseong confirms the meaning of establishing Hwaseong police protection headquarters and the Strong fortified remote barracks in all of the known world. In other words, the reason why the highest government official other than king was nominated as the head of Hwaseong was due to the intention by King Jeongjo to strengthen the royal power to in order to pursue new policy. Hence the weightiest person in the cabinet shall be nominated to the position of the head of the newly established Hwaseong police protection headquarters, in order to achieve various policy support accordingly.

Build Hwaseong as another capital city!

King Jeongjo, after establishing the strong fortified remote barracks at Hwaseong police protection headquarters, prepared for a long term subsequent plan. He was making Suwon another capital city. Suwon would be another capital city where he would stay and pursue innovation, together with Hansung city as the existing capital city. For this purpose, he promoted large scale Hwaseong construction. While King Jeongjo was able to commence Hwaseong construction, it was in 1794(King Jeongjo the 18th) when he commenced the work. This was due to the hidden intention of King Jeongjo. King Jeongjo earned his son's reputation after relocating the tomb of his father Prince Sado to Suwon. The year of the birth of the prince, who would become King Sunjo was in 1790. King Jeongjo wanted to hand over the throne to the prince when the son reached the age of 15, and to stay at Suwon as a former King. The reason was for a renaissance of the honor for Prince Sado.

After Prince Sado died in the rice chest, King Youngjo banned any talk regarding Prince Sado. He was so stubborn that he judged any praise for Prince Sado by anyone who was loyal to the prince as a conspiracy to revolt. And Youngjo ordered his grandson King Jeongjo never to release the Prince Sado from the crime of his

rebellion and to the honor of a king, when he comes to throne later. Due to such a decree from his grandfather King Youngjo, King Jeongjo could not honor his father Prince Sado as a king, even though he ascended the throne. During the Chosun Dynasty era, there were cases of honoring deceased fathers of incumbent kings as honorary kings. King Injo honored his father 'Jungwon-gun' as King Wonjong and established an ancestral tablet in the royal ritual house. King Jeongjo also wanted to honor Prince Sado alike, but strict order from Grandfather King Youngjo prevented him from what he wanted to. Accordingly, King Jeongjo devised a clever scheme. It was handing over the throne to his own son when the son reached the age of 15 and he became a former king. His idea was letting the prince upon mounting the throne to honor his grandfather Prince Sado as a former king. That was why he commenced building Suwon's fortress where he would stay, in 1794. He never thought the fortress would be completed within 3 years, but thought it would take more than 10 years. After commencing construction 1794, the completion of it would be until 1804, which would be the year when his prince reached the age of 15. So King Jeongjo would complete all of his plans.

Accordingly, King Jeongjo expanded the scale of Hwaseong Fortress greatly, with elaborate plans to make Suwon as the former king's capital. Hanyang would be the incumbent king's capital, and Suwon Hwaseong would be former king's capital. The former kingdom, planned by King Jeongjo would be exercising a much stronger power. The former king would retain the authority over government officials, judicial powers and the supreme command of the army in the Chosun Dynasty. There was a case in Chosun Dynasty already. When King Taejong handed over the throne to King Sejong, the same situation occurred. King Jeongjo would like to succeed in history from the era of King Taejong and King Sejong. Additionally, the capital Hanyang was the area controlled by the vested rights represented by the 'arguments of the aged group'. However hard King Jeongjo pursued innovation, if such vested rights refused to follow and face off against the king, then King Jeongjo may see as an abject failure. Hence, King Jeongjo sought to create another capital where he would innovate the whole Chosun Dynasty, with Suwon as his innovative base where he could start completely again.



깎고,
두드리고,
다듬으며

완성
하
는

두 사람의 이야기



반 지 공 방 미 스 스 켈

사랑을 완성하기까지 우리는 수많은 시련을 겪는다. 완전하지 못한 두 사람이 만나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더 단단해지고, 때로는 서로를 빛내주며 마침내 함께하게 된다. 사랑의 과정은 그 징표로 여겨지는 반지가 완성되는 과정과도 닮았다. 반지공방 미스스켈에는 평범한 두 사람이 만드는 이야기가 가득하다.

글 권유진 사진 김오늘



변하지 않는 사랑의 약속, '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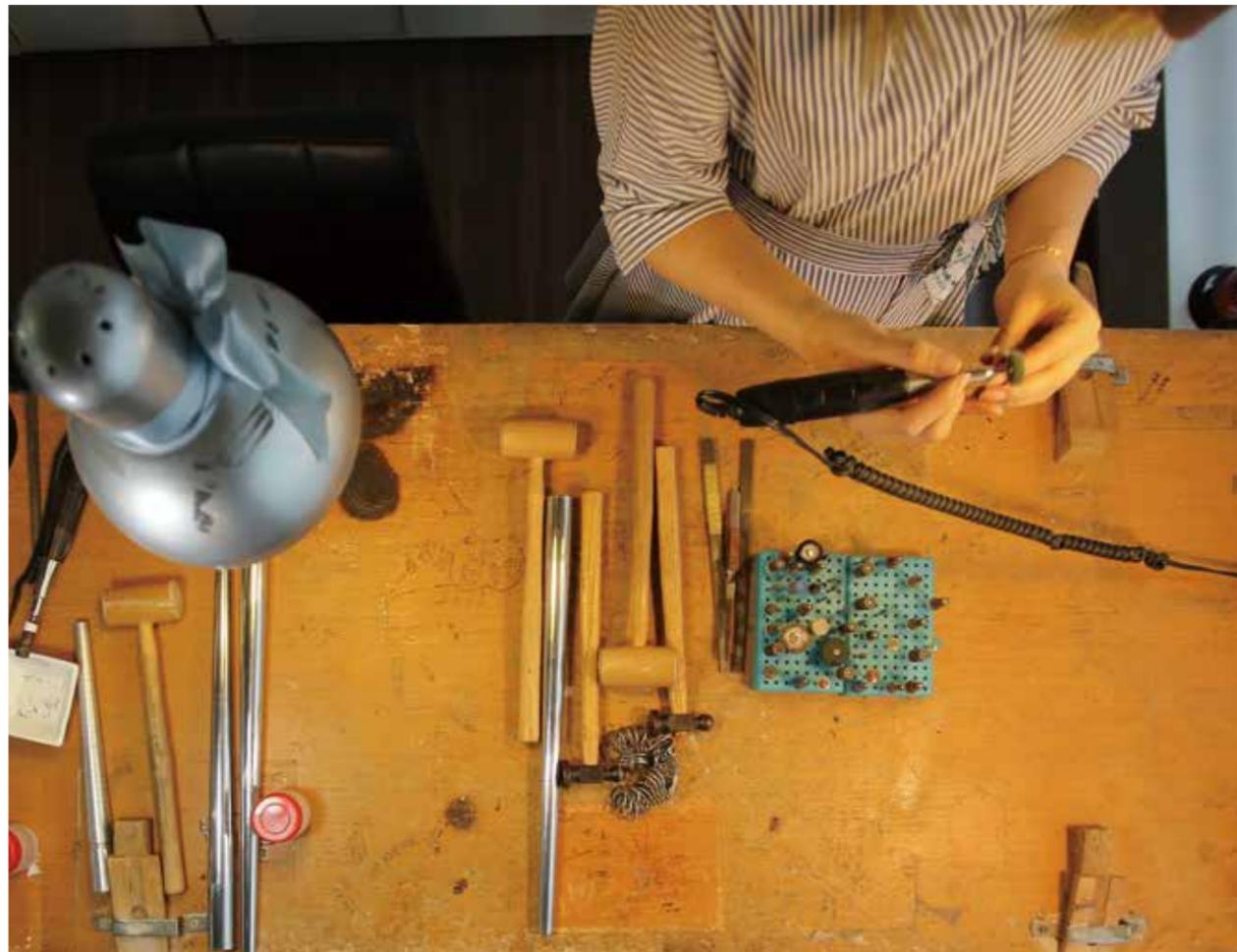
고대 이집트인들은 왼손 약지와 심장 사이에 혈관이 존재한다고 믿었다. 심장을 인간의 가장 귀중한 장기로 생각한 이집트인들은 심장에 직결되는 혈관이 있는 왼손 약지에 반지를 김으로써 신성한 결혼이 맺어진다고 여겼다. 이 같은 풍습이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우리는 소중한 사람과 반지를 나눠 끼며 변하지 않는 신뢰를 약속한다. 5년 전 인계동에 문을 연 미스스컬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반지를 만들 수 있는 곳이다. 공방을 열기 전, 파티 플래너로 근무했던 김보라 대표는 단순하지만 그 어떤 재료보다 순수하고 오묘한 은의 아름다움에 반해 액세서리를 만들기 시작했다.

“어렸을 때부터 손으로 무언가 만드는 일을 좋아했어요. 대학생 때는 직접 재료를 구매해 팔찌나 목걸이를 만들어 판매하며 용돈벌이도 하고, 회사를 다닐

때는 취미로 액세서리를 만들어 선물했죠. 나중에 저만의 공방을 꼭 열고 싶었는데, 파티 플래너로 일하며 추억을 선물해주는 일도 보람되고 행복했어요. 두 가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반지공방을 열게 됐죠.”

전문적인 액세서리 제작 경험이 없었던 김보라 대표는 서울 종로에 위치한 주얼리 공방과 전문샵에 발품을 팔며 제작 방법을 배웠다. 벌써 5년째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그녀는 현재 온라인에서도 직접 디자인해 만든 다양한 액세서리를 판매하고 있다.

“실버 제품이 가장 인기가 많아요. 단순하면서도 감각적이라 전체적인 스타일에 포인트를 더해주고, 액세서리의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어주죠. 또 공방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어 커플링 재료로도 가장 많이 사용해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둘만의 반지

미스스컬은 주로 이색 데이트를 찾는 연인들이 방문하지만 친구끼리 우정반지를 만들거나 소중한 가족에게 생일선물을 주기 위해 공방을 찾는 경우도 많다. 전문 강사의 도움을 받아 짧게는 두 시간 안에 커플링을 직접 만들어볼 수 있다.

“우선 원하는 디자인을 선택해야 하는데, 공방에서 만든 샘플을 보고 결정하거나 강사의 도움을 받아 도안을 완성해 만들 수 있어요. 대부분의 손님들이 작업하는 시간보다 디자인을 고르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데, 특별히 원하는 디자인이 있다면 구체적이진 않더라도 최소한 '별이나 하트를 넣고 싶다' 정도쯤 미리 생각해보시면 수월하죠. 또 무늬가 복잡하면 만들기가 쉽지 않고,

착용할 때도 쉽게 질릴 수 있으니 되도록 심플한 디자인이 좋아요.”

제작에 들어가면 은판을 자른 막대를 평평하게 갈아주고 열을 가해 부드럽게 만든 뒤, 동그랗게 말아 반지의 모양을 잡아준다. 이후 사이즈 봉에 재료를 끼워 나무망치로 내리쳐 원하는 사이즈로 맞춰준다. 모양이 만들어지면 줄톱으로 표면을 다듬어주는데, 이 작업을 세심하게 해야 나중에 깔끔한 반지를 완성할 수 있다. 표면 정리가 끝났다면 디자인에 따라 홈을 파거나 모양을 만든 뒤, 사포와 기계를 이용해 광을 내준다. 마지막으로 작업과정에서 생긴 불순물을 세척해주면 하나밖에 없는 실버 반지가 완성된다. 금이나 다른 재료로 만들고 싶다면 은반지를 만들어 틀에 넣고, 재료를 부어 완성할 수 있다.



특별한 하루를 만드는 반지공방 데이트

김보라 대표는 “여러 공정을 거쳐야 반지가 완성되지만 연인들에게 커플링을 만드는 시간 자체가 특별한 이벤트가 된다”고 말했다. 상대방의 손에 이끌려 공방을 방문한 사람들도 사랑하는 사람과 ‘세상에 하나뿐인 반지’를 만들어 추억을 쌓는다.

“공방에 오는 손님들 대부분 줄톱을 처음 잡아보고, 망치질 하는 것도 서툴러요. 작업 초반에 싸우는 커플도 있는데 킁킁대며 얼굴 찌푸리며 작업을 하다 가도 동그란 반지 모양이 나오기 시작하면 눈빛이 달라지죠. 작업 후반에 표면을 깎고, 광을 내는 작업은 서로 반지를 바꿔 만들도록 하는데, 연인에게 더 예쁜 반지를 주고 싶은 마음에 정말 열심히 작업에 몰두하세요.”

반지를 만들면서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거나 미처 알지 못했던 상대방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도 반지공방의 매력이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비싼 반지보다 예쁜 반지만, 세상 어디에도 없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담긴 반지를 만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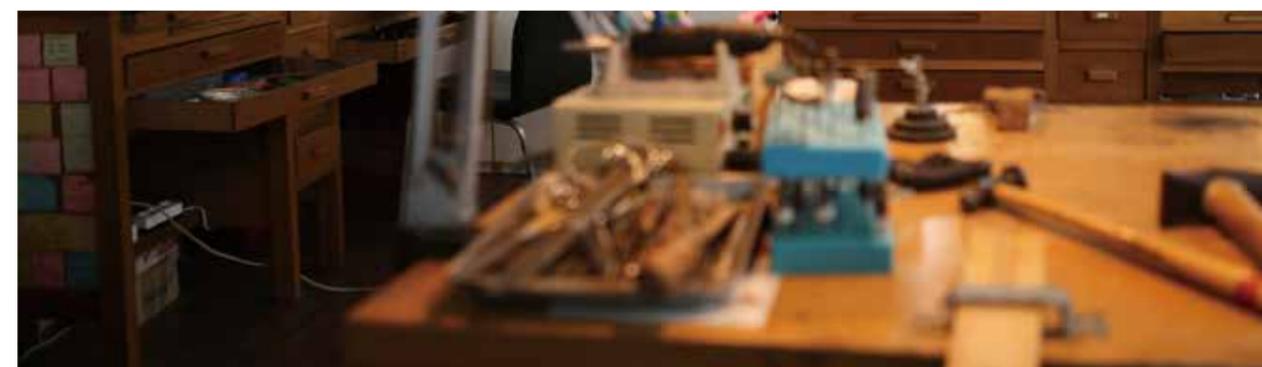
“서로의 지문을 들어간 디자인으로 커플링을 만든 분들이 계셨어요. 몇 년 뒤에 ‘커플링 덕분에 사랑도 오래 간 것 같다’면서 결혼반지를 같은 디자인으로 하고 싶다고 또 한 번 공방을 찾아주셨죠. 결혼 10주년으로 커플링을 만든 분도 기억에 남는데, 남편이 연애시절에 그려준 그림을 반지에 꼭 넣고 싶다고 하셨어요. 수작업 반지는 보석의 위치, 무늬 하나하나가 두 사람의 이야기들로 꾸며져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김보라 대표는 앞으로 더 다양한 액세서리를 디자인해 선보이고 싶다고 전했다. 사랑하는 이들의 추억이 가득한 미스스컬에서 전해줄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 🏠



미스스컬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69 에스팍타워 3F
 운영 10:00~18:00 연중무휴
 과정 실버 반지, 팔찌, 골드 반지, 팔찌 제작 강습
 문의 031-236-4426
 사이트 <https://smartstore.naver.com/myskull>



<p>A</p>	<p>R</p>	<p>T</p>			<p>아트리움은 당신과 함께</p>	
			<p>R</p>	<p>I</p>	<p>UM</p>	
	<p>WI</p>			<p>TH</p>		<p>수원SK아트리움은 상반기에 수원 시민들과 관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하고자 수준 높은 공연들을 기획하여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1월, 비엔나 왈츠 오케스트라의 화려한 신년음악회로 2018년의 막을 열었고, '신구, 이순재, 김슬기, 박소담' 출연으로 화제를 모았던 연극 '양리할아버지와 나'를 통해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하우스 콘서트에도 '반도네오니스트 고상지', '퓨전국악그룹 고래야', '기타듀오 비토' 등 실력과 아티스트들이 출연하여 관객과 가까워서 소통했다. 한층 업그레이드되어 수원SK아트리움의 대표적인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은 '전원경의 미술관 옆 음악당', 웰메이드 어린이 뮤지컬 '핑크퐁과 상어가족', 국립발레단의 '해설이 있는 발레 돈키호테', 경기도립무용단의 '우리 춤의 향연' 그리고 무료영상상영(SAC on Screen, 아트리움 시네마)을 통해 관객들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했다. 또한 '스쿨마티네', '경기필하모닉 클래식&무비' 등 청소년들을 위한 공연프로그램 기획으로 큰 호응을 얻으며 올 하반기에도 더욱 풍성한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p> <p>글 고서진 공연기획팀</p>
<p>Y</p>		<p>O</p>		<p>U</p>		

0 1

소공연장 특선화 프로그램

아트리움 더 스테이지2
<할머니>

10.12(금) 오후 7시 30분, 10.13(토) 오후 3시 / 수원SK아트리움 소공연장



안점순 할머니는 언제나 '좋은 소식'을 기다린다. 첫 째 조카와 살고 있는 그녀를 찾아오는 이는 이들은 손님이 아닌 가족 '수원평화나비' 사람들이다. 자기 이야기를 하기보다 그들의 말을 듣고 있는 시간이 더 많지만 찾아오거나 만나는 것은 늘 반갑다. 하루 종일 다양한 종류의 약을 먹고, TV와 싸우며 마당에 수국을 기르시는 할머니. 만 90세인 할머니는 노쇠하여 병원을 자주 드나든다. 평소 몸이 아파도 침은 절대 맞지 않았던 그녀. 최근 반복되는 빈혈증세로 어쩔 수 없이 종합검진을 받을 때도 바늘이 싫어 며칠 동안 같은 팔에만 링거를 맞았다. 할머니는 왜 바늘이 그토록 싫으신 걸까? 창작집단 V.O.I.C.E2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故안점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새로운 각도로 재조명하고자했다. 음악극 '할머니'는 수원에 살고 계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였던 할머니의 '말씀 그대로'를 담은 버batim 음악극(verbatim music theatre)이다. 이번 공연은 안점순 할머니의 아픈 과거를 들춰내어 재현하는 방식이 아닌, 현재의 삶에 주목한다. 할머니의 삶과 그 속에 드러나는 흔적들을 통해 관객이 과거와 우리의 모습을 마주보고 음미해 볼 수 있도록 한다. 음악극 '할머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이야기가 수단과 이슈로 주목되기 보다는 돌아온 이후 하루하루를 살아냈던 삶에 대해 지금 할머니의 일상을 통해 그 가치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했다. 공연은 전석 1만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수원SK아트리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버batim 음악극(verbatim music theatre) : 2000년대 이후 영국을 중심으로 새로 떠오른 연극 사조이다. 단순히 현실의 재현이 아니라 개인의 삶이나 한 집단의 삶에 들어가 그들의 목소리를 실제 사건의 영상물, 기사, 판결문 등 다양한 연극적 오브제와 장치들을 통해 음악적으로 재구성하는 음악극 형식이다.

0 2

아트리움 발레데이트 시리즈

유니버설발레단
<해설이 있는 스페셜 갈라>

10.14(일) 오후 5시 / 수원SK아트리움 대공연장



수원SK아트리움에서는 2018년 발레데이트 시리즈를 해설이 있는 작품으로 준비했다. 첫 번째 공연이었던 <국립발레단 해설이 있는 발레 '돈키호테'>가 전석매진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성료하였고, 오는 10월 14일에는 세계적인 수준을 인정받은 유니버설발레단의 <해설이 있는 스페셜 갈라>로 수원시민을 찾아온다. 유니버설발레단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스페셜 갈라'는 한 자리에서 만나기 어려운 유수의 작품들의 하이라이트로 펼쳐진다. 발레를 사랑하는 수원시민에게 레퍼토리의 다양성과 새로운 울음을 부여할 예정으로 기대해도 좋다. 클래식발레의 대표작 <백조의 호수>, <지젤>, <돈키호테>, <해적>을 비롯해 유니버설발레단의 대표적인 창작 발레 <빈사의 백조>, <발레 춘향> 등으로 구성되어, 클래식발레부터 창작발레까지 다채로운 레퍼토리 향연에 빠져보기를 바란다. <유니버설발레단 해설이 있는 스페셜 갈라>는 R석 3만원, S석 2만원으로 다양한 할인혜택으로 예매할 수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수원SK아트리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0 3

아트리움 문화가 있는날 데이트 시리즈

인간과 예술, 우리들의 삶과 사랑의 이야기
<전원경의 미술관 옆 음악당 시즌3>

10.30(화), 12.26(수) 오전 11시 / 수원SK아트리움 소공연장



문화가 있는 날 데이트로 3년 연속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렉처콘서트 <전원경의 미술관 옆 음악당! 칼바람이 불던 지난 2월 티켓오픈 일주일 만에 6회 패키지 티켓이 매진되는 등 티켓파워를 보여주며 주부관객들에게 끊임없이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이 공연은 벌써 2018년 2회차 공연만을 남기고 있다. 예술가들의 명작과 음악작품들이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예술전문가가 전원경의 해설과 클래식 공연이 우리들의 삶과 사랑을 이야기한다.

10.30(화) '우정과 라이벌 의식, 예술가들의 우정이란?' 예술도 때로는 경쟁심리에 의해 더 나은 결과가 등장하고 또 때로는 천재들 간의 협력으로 뛰어난 작품이 탄생한다. 다빈치와 미켈란젤로, 쇼팽과 리스트, 마네와 모네 등 예술가들 사이 우정과 라이벌 의식의 결과물로 탄생한 걸작들을 집중적으로 조망해본다.

12.26(수) '예술가의 여행과 유학, 여정에서 태어난 명작들' 여행과 유학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만나는 과정은 한 사람의 일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렇다면 예술가들에게 여행은 어떤 의미였을까? 유학과 여행을 통해 만나게 되는 새로운 풍경은 예술가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왔는지 들여다보자. 헨델 '울게 하소서', 보케리니 '서주와 판당고' 등이 연주되며, 뒤러, 루벤스, 들라크루아, 고갱의 미술작품들이 소개된다.

현재는 12월 공연에 한해 예매가 가능하다. 전석 1만 2천원이며, >문화가 있는 날 할인(15%) >조기예매 할인(20%) 등 다양한 할인 정보는 수원SK아트리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0 4

아트리움 문화가 있는날 데이트 시리즈

문화가 있는날 이지훈X전수경
<뮤지컬, 재즈에 빠지다>

10.31(수) 오후 7시 30분 / 수원SK아트리움 대공연장



10월 '문화가 있는날'에는 가수이자 뮤지컬 배우, 드라마를 넘나드는 멀티테이너 '이지훈'과 뮤지컬 1세대 배우 '전수경', 피아니스트 엄주빈이 이끄는 '엄주빈 밴드'가 수원SK아트리움을 찾는다. 이지훈은 '왜 하늘은' 곡으로 가요계에 혜성같이 등장하여 현재는 다양한 뮤지컬 작품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뮤지컬 배우이자 가수이다. 전설의 명곡 '왜 하늘은'과 더불어 '지금 이 순간(지킬 앤 하이드 中)'등 관객들에게 친숙한 뮤지컬 곡들을 선보인다. 전수경은 본인의 이름을 대한민국에 알린 뮤지컬 '맘마미야'의 주요 넘버들을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엄주빈 밴드의 재즈와 팝을 라이브로 즐길 수 있다. 10월의 마지막 주 수요일 밤, 수원SK아트리움에서 풍성한 음악을 만나보길 추천한다.

이지훈
1996년 '왜 하늘은'이라는 데뷔 곡을 통해 가요계에 혜성같이 등장한 이지훈은 이후 균형 잡힌 외모와 특유의 '뚜껑' 입술로 가요계와 예능을 넘나들며 큰 인기를 얻었다. 특히 2001년 연예계 대표 걸친 가수 강타와 '신혜성' 등이 참여한 '인형'이라는 곡을 통해 다시 한번 아티스트로서 자리 잡은 그는, 2000년 가요계를 넘어 연기에 도전하였다. 이지훈은 '나는 내운명', '최고다 이순신' 등과 같은 30% 넘는 시청률을 기록하며 멀티테이너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이후 뮤지컬 '알티 보이즈'를 시작으로 '잭 더 리퍼', '엘리자벳', '위키드', '영웅', '헐리웃' 등 대형 뮤지컬을 통해 관객들의 환호를 받았으며 최근 뮤지컬 '안나 카레니나'에 캐스팅 되어 뮤지컬계의 실력파 배우로서 활약을 하고 있다.

전수경
1988년 MBC 대학가오제에서 동상을 수상하며 데뷔한 전수경은 뮤지컬 '캣츠'를 비롯 '보르드웨이 42번가', '이끼와 견달들', '사카고' 등 유수의 작품에 출연하며 관객들의 사랑을 받아온 배우다. 특히 1999년 '더 라이프'와 2002년 '키스 미 케이트'로 한국뮤지컬대상 여우주연상을 두 차례나 거머쥐며 관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고 현재는 명실공히 맘마미야에서 가장 인기 높은 배우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 이외에도 드라마 '넝쿨째 굴러온 당신', '반짝반짝 빛나는', 영화 '간기남', '김종욱 찾기' 등의 화제작에 출연해 개성있는 캐릭터로 열연을 펼치며 브라운관과 스크린, 무대까지 넘나드는 넓은 스펙트럼을 보여 온 전수경은 현재 '쥬키러 맘마미야', '3대부 뮤지컬 콘서트의 무대와 더불어 MBN '속풀이쇼 동치미', 채널A '본노랑' 등에도 출연하며 입담을 뽐내고 있다.

0 5

아트리움 연극 뮤지컬 데이트 시리즈

일상에 지친 당신에게! 공감과 위로의 메시지 뮤지컬 <오! 당신이 잠든 사이>

11.16(금) 오후 8시, 11.17(토) 오후 3시 / 수원SK아트리움 소공연장



카톨릭 재단의 무료 병원, 반신불수 환자 최병호가 감쪽같이 사라졌다. 게다가 병원 바깥에는 차도 다니기 어려울 만큼 눈이 쌓여 고립된 상황! 언 말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출연해 기부금을 받는데 일조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띤 그의 실종에 새로운 병원장 베드로는 당혹해 하는데... 베드로는 최병호가 병원 내에서 평판이 좋지 않았던 점에 주목, 같은 병실 환자 정숙자, 이길레 그리고 그들의 담당의 닥터리, 병실 키퍼인 김정연을 차례로 만나 최병호의 행적을 추적하며 그들의 숨겨진 사연과 비밀에 다가가기 시작한다. 과연 아무데도 갈 수 없는 최병호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모두가 잠든 사이에...

뮤지컬 <오! 당신이 잠든 사이>는 극단 연우무대의 창작뮤지컬로 2005년 초연 이후 13년간 3,300회 이상 공연하며 전국 40여개 도시 무대에 오른 작품이다. 소극장 뮤지컬 최초로 제12회 한국뮤지컬대상에서 최우수작품상, 작가-극본상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뮤지컬 '김종욱 찾기', '그날들', '형제는 용감했다' 등을 만들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을 연출한 장유정 연출가의 데뷔작이기도 하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최고의 힐링 뮤지컬 <오! 당신이 잠든 사이>는 오는 11월 수원SK아트리움에서 만나볼 수 있다.

0 6

아트리움 클래식데이트 시리즈

오감으로 느끼는 18세기 바로크 음악의 진수 <이무지치 베네치아니>

11.18(일) 오후 4시 / 수원SK아트리움 대공연장



베네치아 거장들의 레퍼토리를 전문적으로 연주하는 이무지치 베네치아니 오케스트라는 베르디, 푸치니, 로시니와 같은 베네치아 출신의 거장들에 대한 존경심으로 베네치아 컨서바토리 출신의 음악가들에 의해 1996년 창단되었다. 비발디의 '사계' Four Seasons'부터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소프라노, 메조 소프라노, 테너, 바리톤들과 함께 어우러져 바로크 시대의 가장 아름다운 아리아로 구성된 '바로크와 오페라' Baroque and Opera'를 공연하며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무지치 베네치아니가 18세기 복식과 장신구를 착용하고 매 시즌 정기연주를 펼치는 살론 카피톨라레 Salone Capitolare는 베네치아 출신의 건축가이자 조각가인 발다사레 롱게나 Baldassare Longhena의 작품으로 베네치아 리알토 다리 인근의 스키투라 그란데 디 산 테오도로 Scuola Grande di San Teodoro 안에 위치하고 있다. 피가로의 결혼, 세빌리아의 이발사, 돈 조반니, 라 트라비아타, 라보엠 등 오랜 시간 대중에게 사랑을 받아 온 오페라 아리아를 선보일 예정이다. 눈과 귀가 즐거운 바로크 오페라의 향연 이무지치 베네치아니는 2017년 첫 내한 공연에서의 관객들의 열렬한 호응에 힘입어 2018년 다시 한국을 찾는다. 수원SK아트리움 공연은 11월 18일이며 티켓가는 2~7만원이다. 자세한 공연정보는 수원SK아트리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0 7

소공연장 특성화 프로그램

아트리움 더 스테이지3 창작판소리 <정조가>

11.23(금) 오후 7시 30분, 11.24(토) 오후 5시 / 수원SK아트리움 소공연장



수원문화재단이 만든 창작판소리 '정조가'는 작년 수원SK아트리움 소공연장에서 첫 선을 보였으며, 올해 11월 다시 한 번 관객들에게 찾아간다. 개혁군주 정조 그가 그리던 세상 그리고 사랑 조선 제 22대왕 정조의 '호호부실 인인화락 戶戶富實 人人和樂(집집마다 부유해지고 사람과 사람들이 화목하고 즐거워야 한다.)'처럼 정조는 스스로가 바라던 세상을 꿈꾸며 1796년 9월 '수원 화성'을 축성하기에 이른다. 창작판소리 <정조가>는 이런 개혁군주 정조의 위대한 업적 이면의 인간 이산의 정치와 사랑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정조의 위대한 업적과 대비되는 그 이면에 힘든 과정 속에서도 그를 버릴 수 있게 해준 건 의민성씨 덕임 그녀와의 사랑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 간 그의 위대한 업적에 가려져있던 정조의 아름답고 안타까운 사랑 이야기를 우리의 전통 소리로 관객들에게 찾아간다. 전석 1만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수원SK아트리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0 8

아트리움 클래식데이트 시리즈

리처드 용재오닐 송년음악회 <선물>

12.16(일) 오후 4시 / 수원SK아트리움 대공연장



2018년을 마무리하는 송년음악회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클래식 연주자인 리처드 용재오닐과 피아니스트 전지훈, 디토 챔버오케스트라가 장식할 예정이다. 한해를 마무리 하는 12월, 오랜 기간 그를 아껴준 관객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선물로 무대를 마련했다. 집에서 편안한 음악을 들려주듯, 그가 사랑하는 동료 연주자들과 함께 그가 아끼는 아름다운 음악들을 연주할 예정이다. 아름다운 청년에서 시작, 따뜻한 인간성으로 더욱 빛나는 그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

리처드 용재 오닐 (비올라)

비올라리스트로서 그래미상 후보 지명뿐만 아니라 에버리 피셔 커리어 그랜드 상을 받은 드문 연주자 중 한 사람으로 링컨센터 체임버 뮤직 소사이어티, 카메라타 피시파카, 에네스 파르밋 멤버로 활동 중이다. 한국에서는 디토 페스티벌 음악감독과 앙상블 디토 리더이다. 줄리아드 음악원에서 비올라리스트 최초로 아티스트 디플로마를 받았으며, 서던 캘리포니아 음대에서 학사(마그나 쿤라우데)를, 줄리아드에서 석사 과정을 마쳤다.

전지훈 (피아노)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국립음대 학사과정에 최연소 입학 및 수석 졸업하였으며 2006년 베를린 국립음대에 입학, 전문연주자과정 수석졸업과 함께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였다. 빈 요제프 디흘러 피아노 콩쿠르 1위, 포르투갈 포르투 국제 피아노 콩쿠르 3위 및 최연소 특별상, 빈 베토벤 국제 피아노 콩쿠르 한국인 최초 2위 없는 3위, 블리디게로프 국제 피아노 콩쿠르 2위 및 스키투라 특별상을 받았다. 현재 서울대학교 박사과정에서 Teaching Assistant로 전액장학금을 지원받으며 재학 중이며 신인자, 크리스토프 리스케, 파스칼 드보이옹, 장현준 교수를 사사했다.

디토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

디토 체임버 오케스트라는 2008년 조직되어 대한민국 대표 클래식 축제라 불리는 디토 페스티벌의 상주 오케스트라이자 815 DMZ 평화콘서트, 크레디아 파크콘서트 등 국내 대형 클래식 공연의 주요 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2008년 창단 후 정민 아드리엘 김, 와드 스테어(로체스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혼나 테츠미(베트남 국립 오케스트라 상임 및 음악감독), 최수열(서울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등의 지휘자와 함께 했으며, 비올라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 피아니스트 임동혁, 김태형, 김정원, 바이올리니스트 고토 류, 신지아(신현수), 조진주, 한빈(아마데우스 레오폴트), 김다미, 기타리스트 무리지 카오리 등과 유수의 연주자들과 협연하였다.

수원SK아트리움 교육 프로그램

오감스쿨, 꿈다락토요문화학교,
리틀씨어터

2018년 9월~11월 / 수원SK아트리움 공연연습실, 대·소공연장 등



예술감수성을 자극하는 문화예술교육 <오감스쿨>

수원SK아트리움에서는 놀이와 과정 중심의 교육으로 예술 감수성을 자극하는 <오감스쿨>이 9~11월 동안 운영된다. 각각의 예술장르를 중심으로 10주간 예술의 다양한 요소들을 느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다. 유아대상 프로그램은 <연극놀이>, <전통연희공방>이 있고, 초등학교 생대상 프로그램은 <연극놀이>와 <영어뮤지컬>이 운영된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원SK아트리움 홈페이지(www.suwonskartrium.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좌명	대상	교육기간	내용
전통연희공방	유아	9.11(화)-11.27(화), 매주 화요일 16:00 / 10차시	각 지역의 탈을 만들고, 탈춤을 배우보는 등 전통 예술을 체험하는 프로그램
연극놀이	유아	9.12(수)-11.28(수), 매주 수요일 16:00 / 10차시	<어린왕자> 스토리를 기반으로 연극을 통해 표현력과 자신감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
연극놀이	초등 1-2학년	9.12(수)-11.28(수), 매주 수요일 14:00 / 10차시	<브레멘음악대> 스토리를 기반으로 연극을 통해 표현력과 자신감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
영어뮤지컬	초등 3-4학년	9.13(목)-11.15(목), 매주 목요일 16:00 / 10차시	뮤지컬 <라이언킹> 작품을 중심으로 춤과 노래 등 종합적 예술을 배우보는 프로그램



연극 감상을 위한 교육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아트리움 감상체험학교>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연극'공연을 감상하기 위한 기초 이론, 체험, 감상평가를 해보는 교육프로그램이 10월에 운영된다. 총 4주간 진행되며 마지막 차시에는 공연장 백스테이지 투어와 더불어 가족과 함께 연극공연감상도 해보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다. 7, 8기(10월반)은 9월 14일(금) 11시부터 수원SK아트리움 홈페이지(www.suwonskartrium.or.kr)에서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는다.

- 10.13(토) ~ 11.3(토) 오전반 10시 / 오후반 14시

수원SK아트리움 로비 속 비밀공간에서 만나는 공연 <리틀씨어터 In 로비>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예술체험활동으로 추천하는 <리틀씨어터 In 로비>는 수원SK아트리움 대공연장 로비 속 비밀공간에서 진행된다. 비밀공간에서는 연극배우가 스토리텔러가 되어 우수도서를 연극공연으로 보여주고, 관련된 예술체험도 함께 진행된다. 또한, 배우를 따라 수원SK아트리움 대공연장의 무대를 둘러보는 투어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일자별 각각 다른 이야기로 진행되며, 관람료는 7,000원(10인 이상 단체관람 시 5,000원)이다. 프로그램 세부 내용은 수원SK아트리움 홈페이지(www.suwonskartrium.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10.4(목)-5(금), 10.10(수)-12(금) 오전 11시 / 대공연장 로비

- * 수원SK아트리움 공연 및 교육 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자세한 내용은 수원SK아트리움 홈페이지(www.suwonskartrium.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문의 031-250-5300

아트리움 발레데이트 시리즈 2



유니버설 발레단
해설이 있는
스페셜 갈라

2018.10.14.(일) PM 5:00
수원SK아트리움 대공연장



관람료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만6세 이상 입장) 주관 수원문화재단 수원SK아트리움

공연예매 및 문의 수원SK아트리움 www.suwonskartrium.or.kr 031.250.5300 인터파크 ticket.interpark.com 1544.1555

문득
문득
떠오르며
지친 삶을
위로하는

그리움으로 남은 기억들

추억을 간직한 가게
색다른 즐기기

한때의 유행이려니 했던 '복고'가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몇 년 전 시작된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는 매번 큰 관심을 모았고, 1990년대 스타를 소환한 음악 프로그램은 줄줄이 이어지며 인기를 끌고 있다. 과거에 대한 기억은 슬픔보다는 즐거움이, 아쉬움보다는 위로를 선물하기 때문일 것이다. 기억 저편 행복했던 순간을 가져다주는 추억의 이야기를 꺼내본다.

글 권유진 사진 김요늘



로.마.레.스.토.랑

입속 가득 퍼지는 추억 속 한 장면

'경양식'이 최고의 외식이던 때가 있었다. 졸업이나 생일 등 특별한 날에만 가던 곳. 잔잔한 음악이 나오던 경양식집에서는 격조와 품위도 함께 흘렀다. 지금은 쉽게 먹을 수 있던 돈가스도 당시에는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하는 고급스러운 음식의 대명사로 위상을 떨쳤다. 인계동에 위치한 로마 레스토랑에서는 추억 깊은 곳에 자리한 최고의 경양식 돈가스를 만날 수 있다. 32년의 전통을 지닌 이곳은 1987년 당시 박종렬 대표가 처음 고급 레스토랑으로 문을 열었다. 자본력을 앞세운 프랜차이즈 식당과 패밀리 레스토랑의 공세에도 꿋꿋이 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처음에는 고급 요리를 파는 레스토랑으로 시작했어요. IMF를 겪으면서 손님이 많이 줄었는데, 그때 메뉴를 경양식 돈가스로 전환했죠. 저 역시 그 시대에 대한 아련한 기억도 있었고요. 경양식은 젊은 친구들한테는 색다른 외식 아이템이자, 중장년층한테는 추억 그 자체라고 생각해요." 로마 레스토랑에서는 모든 메뉴가 신선한 재료로 만들어진다. 그 중에서

도 돈가스의 주재료인 고기는 얼리지 않은 상태로 들어와 양념을 하고 숙성시킨 뒤, 주문이 들어오면 즉석에서 습식빵가루를 입혀 튀겨낸다. 돈가스에 얹는 데미그라스 소스는 사과와 과일을 24시간 고아낸 육수에 36가지 재료를 더해 만든다. 육즙이 그대로 유지된 채 부드럽게 씹히는 돈가스와 특제 소스의 고소한 맛이 감탄을 자아낸다. 손수 담근 새콤달콤한 깍두기와 양념 단무지는 경양식 돈가스만의 매력을 느끼게 해준다.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었다. 지금의 메뉴를 완성시키기 위해 그는 미각이 변할까봐 오랫동안 피워왔던 담배도 끊었다. 다양한 메뉴를 시도했다 실패도 겪었던 그는 우여곡절 끝에 지금의 메뉴판을 완성했다. "주변에서 '옹고집'이란 소리를 많이 듣죠. 이제 좀 쉽게 할 때도 되지 않았나면서요. 하지만 제가 그 긴 시간 한 자리에서 같은 메뉴로 손님들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가 이런 고집 때문인 것 같아요."

“가게를 오래 경영해서 그런지 기억에 남는 손님들이 많아요. 연인으로 방문했던 손님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고, 그 아이가 커서 또 가게를 찾을 때면 '내가 오랫동안 한 길을 걸어왔구나' 보람을 느끼죠. 건강이 허락하는 한 앞으로도 이 자리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싶어요. 우리 가게에서의 추억을 간직하고 또 한번 찾아주시는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계속 로마 레스토랑을 이끌어 나가려고요.”



”

by 로마레스토랑 대표 박종렬

로마 레스토랑
 위치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49 동수원빌딩 1층
 시간 평일 : 11:00 ~ 22:00
 주말 : 11:00 ~ 20:00
 문의 031-235-8277
 추천메뉴
 왕돈가스 14,000원
 함박 스테이크 15,000원
 생선가스 11,000원

